2026. 4. 1(수) **현 지 정 보** 동경사무소

일본은행 단칸 결과, 제조대기업 업황지수는 4분기 연속 개선

1. 단기전망 주요 결과

□ **2026.3월 일본은행 단기경제관측조사***(이하 '단칸') 결과, 대표지표인 **제조대기업 업황 판단지수**(DI; 좋음-나쁨)가 전분기대비 1%p 상승**한 **17%p**로 조사(25.9월 14%p → 12월 16%p → 26.3월 17%p)

* 대상기업: 9,209사, 회수율: 99.0%, 조사기간: 2.26~3.31일, 조사 대상기업을 재검토하여 2025.12월 지수와 함께 조정

** 전체 16개 업종 중 비철금속(25.12월 13%p → 26.3월 23%p), 생산기계(16%p → 26%p), 일반기계(27%p → 34%p) 등 **9개 업종이 상승**하였으며, 석유·석탄 제품(36%p → 18%p), 목재·목제품(7%p → 0%p) 등 **4개 업종은 하락**

○ **비제조대기업** 업황 판단지수는 **12**월 조사와 동일*한 **36%p**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(25.9월 34%p → 12월 36%p → 26.3월 36%p)

* 전체 12개 업중 중 음식·숙박서비스(25.12월 16%p → 26.3월 23%p), 물품임대(34%p → 46%p) 등 **7개 업종이 상승**하였으며, 운수(31%p → 23%p), 사업서비스(50%p → 43%p) 등 **4개 업종**이 **하락**

○ **全규모·全산업** 업황 판단지수*는 전분기와 동일(18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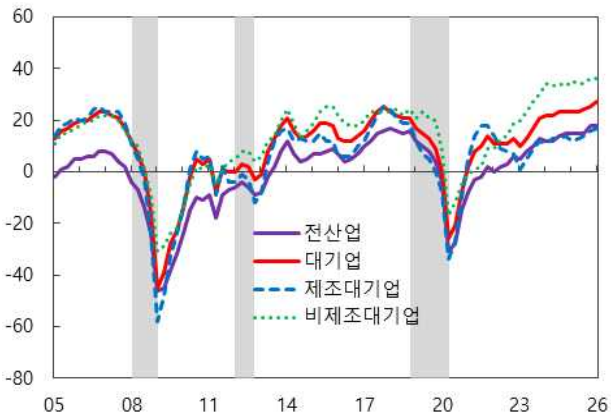
* 제조업(25.12월 11%p → 26.3월 12%p), 비제조업(22%p → 21%p)

□ **3개월후 제조대기업 업황 전망지수**는 **14%p**로 현재(17%p)보다 **하락**

○ **全규모·全산업 전망지수**도 **11%p**로 현재(18%p)보다 **하락**

업황 판단지수[1](%p)

	25.12월	26.3월	
	실 적	실 적	전 망[2]
< 대기업 >	25	27	21
제조업	**16**	**17**	**14**
비제조업	36	36	29
< 중견기업 >	22	23	14
제조업	15	16	9
비제조업	26	27	18
< 중소기업 >	14	13	7
제조업	7	7	4
비제조업	17	16	8
< 전 체 >	**18**	**18**	**11**
제조업	11	12	7
비제조업	22	21	13



주: 1) 좋음 응답비율-나쁨 응답비율 2) 3개월 후 전망치 3) 음영은 경기후퇴기

작성자 : 동경사무소 이종원 차장

□ **고용인원 판단지수**(과잉-부족)는 전분기(전산업 -38%p)와 **동일**하였으나 **3개월후 전망치**(-42%p)는 현재보다 **하락**

○ **생산·영업설비 판단지수**(과잉-부족)도 전분기(전산업 -3%p)와 **동일**하였으나 **3개월후 전망치**(-5%p)는 현재보다 **하락**

□ **2026년도 설비투자계획액 증가율**(토지 제외, 소프트웨어·연구개발 포함 전년비)은 2.7%로 2025년도(7.8%) 대비 **감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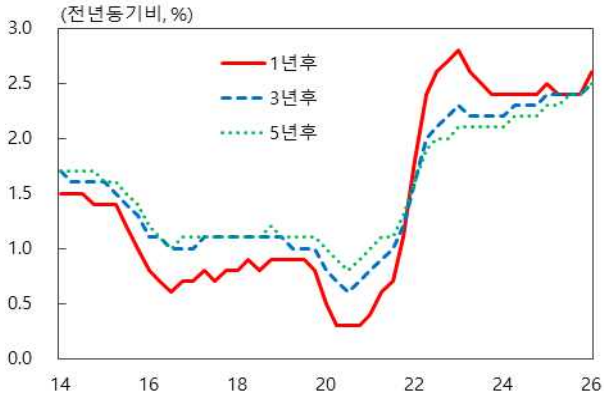
○ 대기업(9.3% → 3.0%), 중견기업(8.0% → 6.5%), 중소기업(7.8% → 2.7%) 모두 증가세가 **둔화**

□ **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**(전년동기비 소비자물가상승률)은 **1년후**(25.12월 2.4% → 26.3월 2.6%), **3년후**(2.4% → 2.5%) 및 **5년후**(2.4% → 2.5%) 모두 전분기대비 **상승**

○ 판매가격 전망(현재수준대비 상승률)도 1년후(2.8% → 3.1%), 3년후(4.4% → 4.6%) 및 5년후(5.3% → 5.6%) 모두 전분기대비 **상승**

고용인원 및 생산설비 판단지수[1](%p)

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



주: 1) 과잉 응답비율-부족 응답비율 2) 음영은 경기후퇴기

2. 시장 반응

□ 주요 언론 및 시장참가자들은 **제조업 업황판단 지수의 개선**은 반도체, 데이터 센터와 같은 **AI 관련 수요 등의 증가**에 기인한 것이며, **중동 정세**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·석탄 제품 등 일부 업종의 **체감경기는 악화**된 것으로 평가(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, 미즈호 증권, 일본경제신문 등)

○ 다만 동 조사가 중동 사태 발발 이전부터 시작되어(2.26일) 중동 정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(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, 미즈호 증권)

○ 한편 고유가와 공급 제약 리스크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, 기업들의 판매가격 전가 움직임 등을 고려해 볼 때 금번 단칸 결과는 일본은행의 **4월 정책금리 인상** 근거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(모건스탠리MUFG 증권, 미즈호 증권, Bloomberg)